



시장 개요

커피류 정의

커피는 '커피의 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식품첨가물을 더한 기호성 식품' 을 의미하며, 볶은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커피

볶은 커피

분쇄 또는 분쇄하지 않은 원두(whole bean)로 커피의 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인스턴트 커피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것으로 농축 / 건조한 후 가루로 만든 물에 녹는 커피와 스틱형 커피로 분류

조제커피

볶은 커피 또는 인스턴트 커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것으로 믹스 커피로 불리는 대다수의 커피가 해당

액상커피

볶은 커피의 추출액 또는 농축액이나 인스턴트 커피를 물에 용해한 것 또는 이에 당류, 유성분, 비유 크림 등을 혼합한 것

◆ 국내에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일상 속 습관처럼 소비되며 한국 커피 시장은 매년 성장 중임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152잔 대비 두 배 이상 높음
 -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2018년 363잔에서 연평균 2.8%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준 미국 318잔보다 많은 커피를 소비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년 음료류 품목별 국내 판매액 중 전체 음료시장에서 커피류* 가 차지하는 비중은 30.8%로 탄산음료 25.5%보다 높은 수준임

* 커피류 :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커피 기준

◆ 한국의 바쁜 기업문화, 커피의 높은 접근성 및 다양한 제품 출시 등은 국내 커피시장이 지속적 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침

- 빠른 속도와 높은 업무 집중을 요구하는 한국 특유의 업무문화로 피로 해소와 집중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커피 섭취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상권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카페 등 소비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 관련 시장 성장을 주도함
- 또한 장소나 상황에 따라 브랜드 커피, 편의점 커피, 믹스/드립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커피 소비가 증대함

* 출처 : Euromonitor(2023), '한국은 커피 공화국... 검고 뜨거운 커피에 중독된 한국인', 매경ECONOMY(2022.10.28.), "하루의 시작은 커피로"... '세계 2위' 한국인의 유난한 커피 사랑, MoneyS(2023.09.03.), '높아진 소비자 기준, '이색' 협업'으로 뚫어라...2023 커피 트렌드', 매거진 한경(2023.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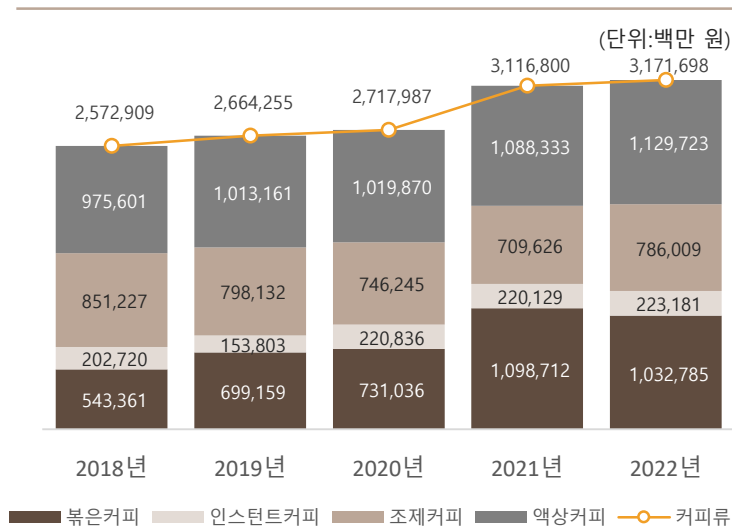
국내 시장현황

- ◆ 2022년 국내 커피 시장규모는 3조 1,717억 원으로, 홈 카페 트렌드 및 소비자의 커피 취향의 다양화·고급화로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 이후 홈카페 유행이 지속되고 카페 커피가격이 인상되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볶은 커피시장은 2018년 이후 연평균 17.4%의 성장률을 기록함
 - 소비자의 커피 취향이 다양화되며 액상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시장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 커피류 중 액상커피 판매비중이 35.6%로 가장 높으며, 볶은 커피 32.6%, 조제커피 24.8%, 인스턴트 커피 7.0% 순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는 커피에 유가공품을 혼합해 만든 액상커피는 언제 어디서나 음용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에 기인함
 - 반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설탕이나 착향료가 들어간 조제커피(믹스커피)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조제커피(믹스커피)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16.6% 감소함(식품의약품안전처)
 - 저가전략을 내세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장, 카페 등 커피전문점 선호 경향 등이 조제커피 시장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MZ세대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프리미엄 인스턴트커피'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MZ세대들의 세분화된 취향과 이색적인 맛, 건강,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운 신제품 출시로 조제커피 시장규모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22년 전년대비 10.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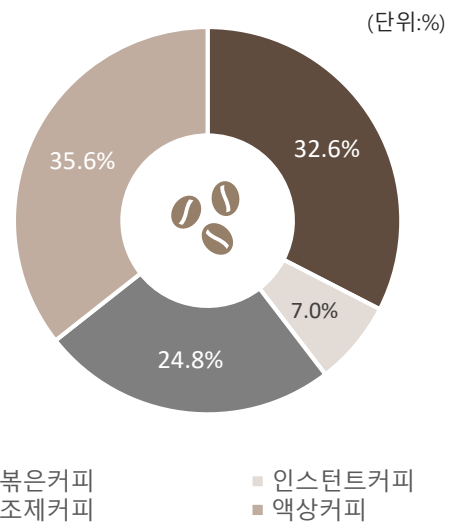
* 출처 :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22), '커피 시장 지속 성장... 지난해 3조1168억 원 규모', 식품외식경제(2023.03.20), "집에서 믹스커피 음용" 절반 이하로...고급저진 커피 입맛, THEPR(2022.12.07), '고급화되고 있는 커피 소비자 입맛과 취향', MADTIMES(2022.12.08), '커피믹스 시장 주도권 쥔 동서식품...실적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메디컬투데이(2022.04.11), '액상커피 시장 3위 매일유업, 순위 도약向 승부수는?', 산업경제뉴스(2022.06.07)

국내 커피류 시장규모(2018~2022)



* 출처 :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22)

국내 커피류 시장비중(2022)



* 출처 :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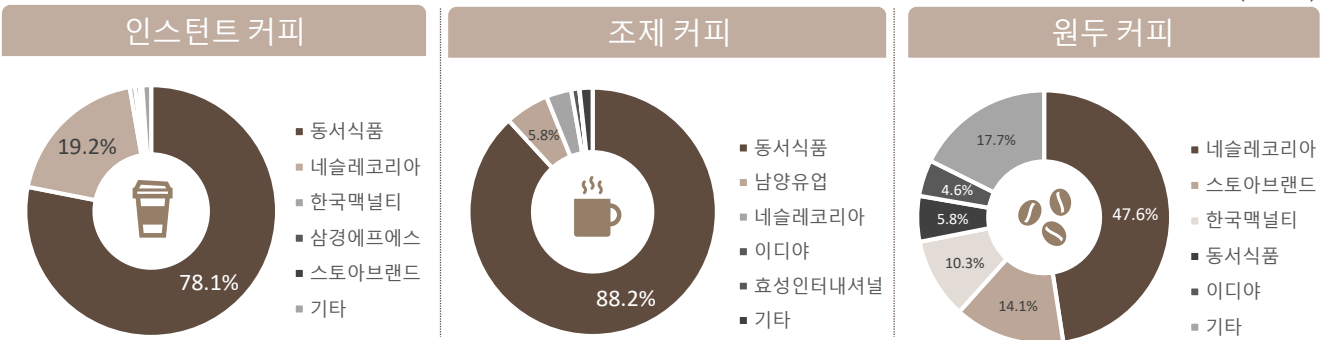


- ◆ 국내에서 커피는 독립슈퍼와 대형유통마트에서 주로 판매되며,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를 제조 및 판매하는 동서식품의 시장 점유율이 78.1%에 달하며, 주로 독립슈퍼 32.7%와 대형유통마트 29.6%에서 판매됨
 - 최근 카누의 인기에 경쟁사들이 유사한 커피를 출시하고 있으며 네슬레코리아(네스카페), 한국맥널티(콜롬비아 블랙, 아이브루), 삼경에프에스(G7) 등의 인스턴트 커피가 판매됨
 - (조제 커피) '커피믹스'의 국내 시장 절대강자인 '맥심'을 제조 및 판매하는 동서식품의 시장 점유율이 88.2%에 달하며, 대형유통마트 30.6%와 독립슈퍼 28.5%에서 주로 판매됨
 - 이 외 남양유업(프렌치 카페), 네슬레코리아(네스카페 커피믹스), 이디야(모카 블렌드 커피믹스) 등이 판매됨
 - (원두커피) 네슬레코리아(네스카페 에스프레소 등)의 시장 점유율이 47.6%에 달하며, 대부분 대형유통마트 87.2%에서 판매됨
 - 최근 소비자들이 스틱형 원두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커피 전문점에서는 스틱형 원두커피를 출시하고 있으며, 이디야 커피의 스틱형 원두커피(비니스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함

* 출처 :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 매출, '동서식품, 40년 인스턴트 커피 독주...대항마가 없다', 메가경제(2021.06.25.), '취향따라 즐긴다...커피업계, 스틱커피 시장 공략', 생활경제(2022.10.13), 이디야커피 '비니스트' 해외에서 활황... K-스티커피 통했다, 글로벌이코노믹(2023.08.29), "가격 올라도 마신다"... 커피업계 영역 확장 쟁걸음, 데일리임팩트(2023.02.16)

커피 유형별 기업 점유율(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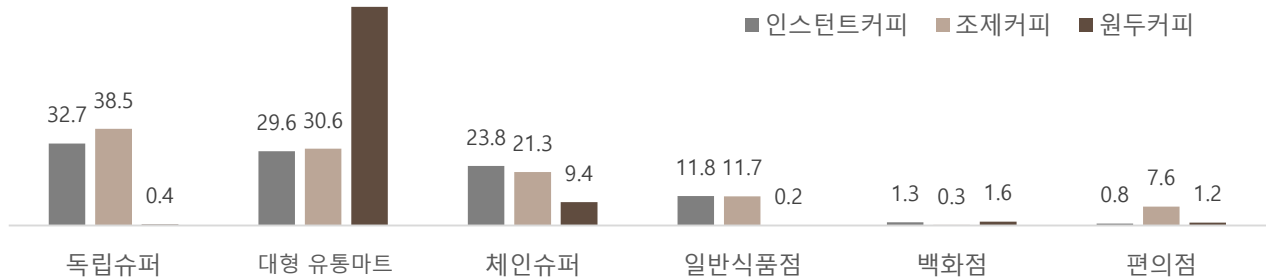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 매출

커피 유형별 유통채널 비중(2021~2027)

(단위:%)



* 출처 :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 매출

**주 : 매출 1,700만 원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독립슈퍼, 미만일 경우 일반식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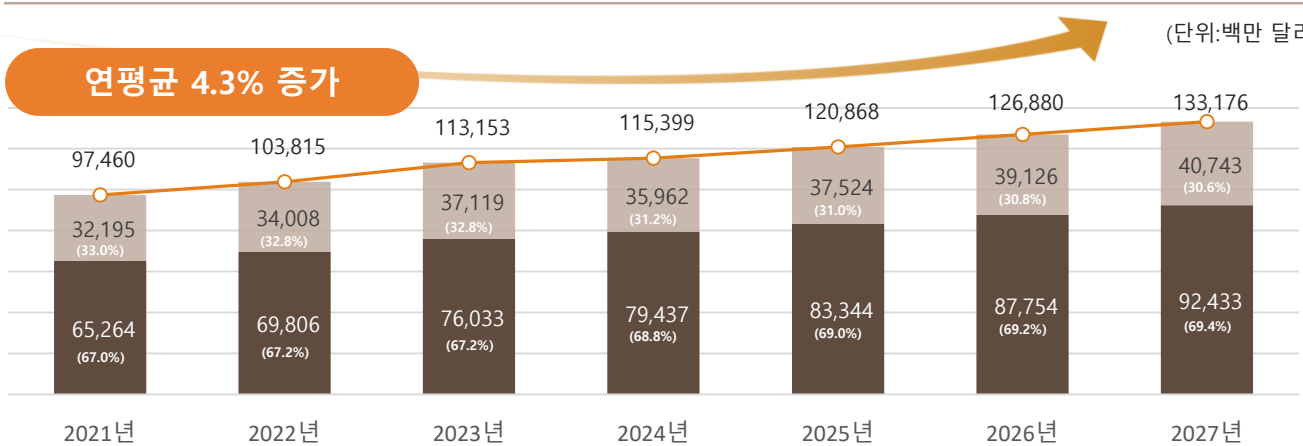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현황

- ◆ 2023년 전 세계 커피 시장규모는 1,131억 5,2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고, 2027년까지 연평균 4.3% 성장해 1,331억 5,75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 세계적으로 커피소비 문화가 일반적이며, 커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주의력 향상 및 피로 해소 등의 효과로 전세계 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심장병,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젠산이 포함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피로를 해소하고 각성을 촉진하며 주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집중력과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으로 꾸준히 소비됨
 - 이 외에도 밀레니얼 세대의 무알코올/무첨가 음료 및 다양한 카페매장, 커피머신의 공급 및 수요 증가, 세계 각국의 커피 문화 발전 등의 요인은 전 세계 커피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함
 - 미국 국립커피협회(NCA)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인의 63%가 매일 커피를 마시며, 이 중 81%는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 ◆ 국제커피협회(Int'l Coffee Organization, ICO)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함
 - 2021/22년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은 10,003 천톤(1억 6,717만 포대, 1포대=60kg), 커피 소비량은 10,218 천톤(1억 7,030만 포대)로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1.9% 높음
 - 이는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은 2020/21년 대비 3.3% 증가한 반면, 커피 주요 생산국의 기후요인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출처 : Euromonitor(2023), Coffee Market Report, ICO(2022.12), Rising Coffee Culture and Increasing Demand for Quick Beverages Propel Global Coffee Machine Market to 2028, Research and Markets(2023.08.01.), New study claims coffee is more popular than water in the US – but what about specialty coffee?, Perfect Daily Grind(2023.09.28.), '세계 커피 소비량, 생산량 넘어섰다', Coffee Daily(2023.01.12.), '커피의 카페인, 주의력·경기력 높이고 심장병 예방', 현대건강신문(2023.10.17.)

전 세계 커피 시장규모(2021~2027)

(단위:백만 달러)



* 출처 : Euromonitor(2023)

■ 전선 커피(원두, 분쇄) ■ 인스턴트 커피(믹스 등) ○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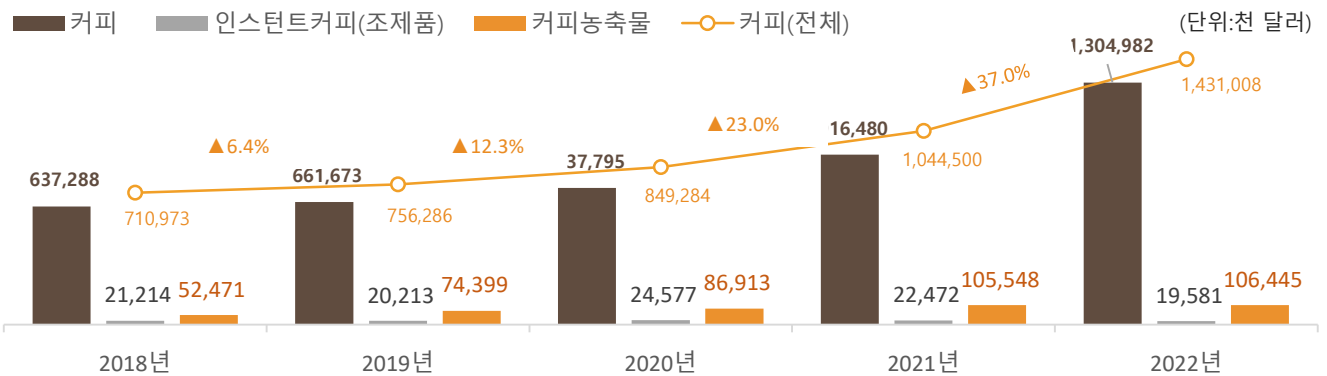
커피 수입현황

- ◆ 커피 및 커피농축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세이나 커피 조제품(인스턴트) 수입규모는 감소함
- 국내 커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 커피 수입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특히 홈카페 트렌드로 커피 및 커피 농축물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커피(생두+원두)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4% 증가하였고, 2022년 10월 최초로 수입액 10억 달러, 수입량 20만 톤에 도달하며 최대 수입실적을 기록함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디카페인 생두 및 원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디카페인 생두 수입량은 전년 대비 53.2% 증가한 6,000톤, 디카페인 원두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1,000톤이 수입됨
- 카페인 과다 섭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디카페인 선호로 2022년 기준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22년 대비 5.5배, 수입액은 22.9배 대폭 증가함

* 카페인 과다섭취 시 불면증, 불안감, 심박수 증가,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이 발생, 중독시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등을 초래하여 식약처 기준 성인 일일 섭취 기준량은 400mg 이하임

* 출처 : ITC Trademap(2023), 커피시장 지속 성장, 지난해 3조 1168억 원 규모, 식품외식경제(2023.03.20), 지난해('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역대 최대, 관세청(2023.01.31), 산업별 주요 이슈 분석, 삼일PwC경영연구원(202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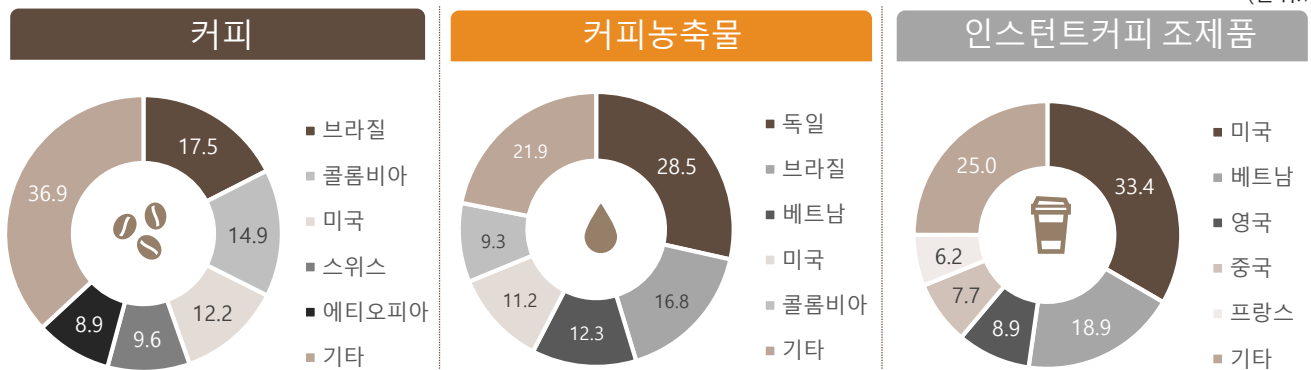
국내 커피 수입현황(2018~2022)



*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2023) * 주: 커피(HS Code 0901), 인스턴트커피(HS Code 2101.12), 커피농축물(HS Code 2101.11) 기준

커피 유형별 주요 수입국(2022)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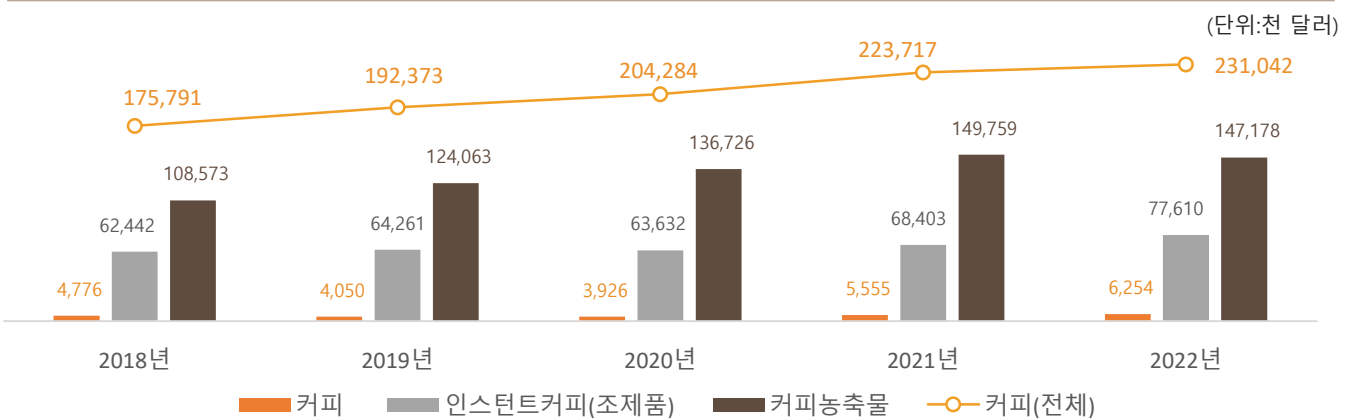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3)



커피 수출현황

- ◆ 커피, 커피농축물 및 인스턴트 커피 조제품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한국 스틱형 인스턴트 커피가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해외로 알려지면서 편의성과 다양한 맛 등 차별성을 내세운 K-커피의 전 세계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임
 - K-커피의 원조인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를 필두로 다양한 RTD*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가 수출되며, 최근 hy는 방탄소년단(BTS) 스페셜 에디션 커피 3종을 수출하며 해외 소비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음
 - * RTD(Ready to Drink) : 구매 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캔/병/팩에 들어있는 음료
 - 국내 일부 커피 제조업체 및 프랜차이즈들은 'K-커피'를 앞세워 세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함
 - 이디야 커피는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 외에도 한국식 커피믹스로 불리는 인스턴트 스틱커피의 맛과 편의성 등 강점을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음
 - * 출처 : ITC Trademap(2023), 'K-커피믹스는 못참지, 토종브랜드 이디야 해외간다', 한국경제(2022.08.24), '세계로 뻗어가는 K-커피, 커피문화 수출효과', 식품음료신문(2023.11.01), '순항하는 K커피, 전 세계가 반했다. 5년만에 수출액 37% 증가, 이투데이(2022.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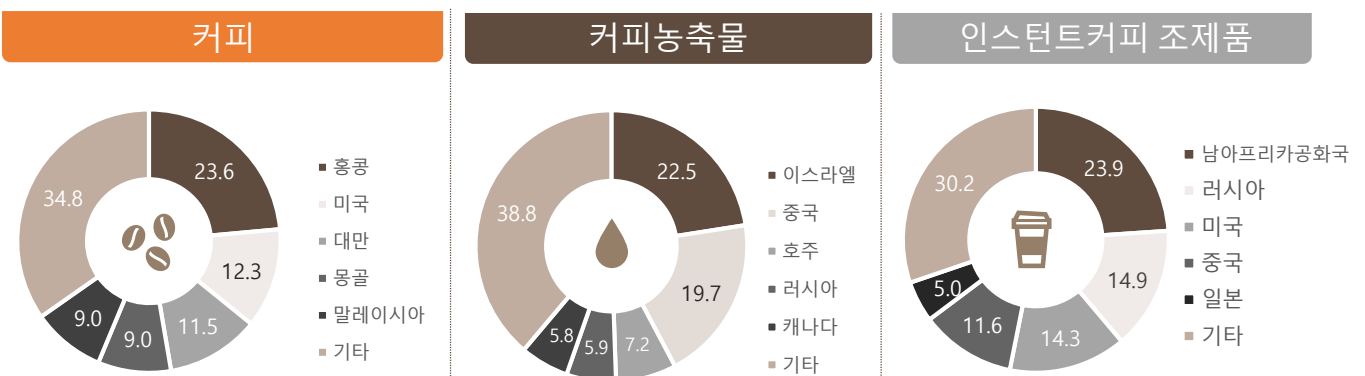
국내 커피 수출현황(2018~2022)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3) * 주: 커피(HS Code 0901), 인스턴트커피(HS Code 2101.12), 커피농축물(HS Code 2101.11) 기준

커피 유형별 주요 수출국(2022)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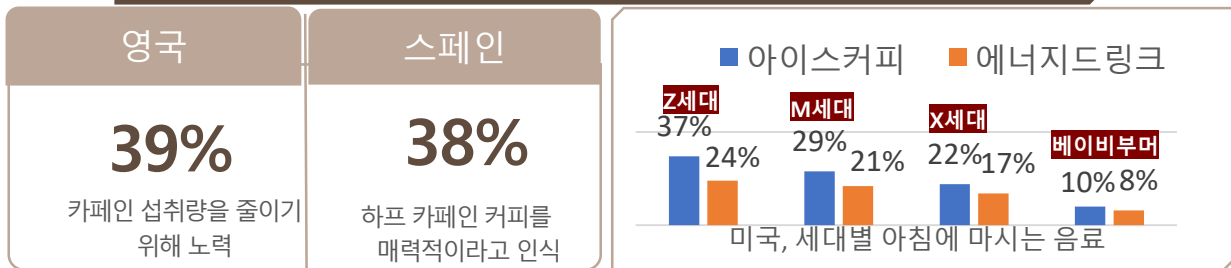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3)



PICK 1 용도에 따라 디카페인부터 하프카페인, 고카페인 커피 RTD까지!

- ◆ 카페인 섭취를 줄여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에 따라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 커피 중간 단계인 하프카페인(Half Caff) 커피가 출시 중임
 - 하프카페인 커피는 일반원두와 카페인이 없는 원두를 보통 1:1 비율로 혼합하며,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절반 수준으로 낮은 반면 디카페인 보다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음
 - 커피의 맛은 즐기면서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불안감, 불면증, 심박수 증가 등을 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함
 -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 하루 최대 400mg의 카페인(8온스 커피 기준 약 5잔)을 섭취할 수 있음.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정신을 맑게 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과다 섭취 시 카페인 중독, 고혈압,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개인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따라 취침시간이 다양화되면서 커피는 마시고 싶지만 편안한 잠자리, 숙면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디카페인 커피 수요 확대
- ◆ 반면, 강한 집중력과 효율이 필요한 운동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에너지 드링크/스포츠 음료 대신 천연성분인 카페인이 함유된 고카페인 커피RTD를 찾는 소비 경향도 증가함
 -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른 아침 고카페인이 함유된 차가운 아이스커피를 즐기며 하루의 활력을 일깨우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차갑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풍미의 인스턴트 커피가 출시 중임

카페인 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아침에 마시는 주로 마시는 음료



* 설문대상 : 1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1,205명(2022.07) 미국 18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2,000명(2022)
* 출처 : Mintel, The Difference Between Half Caff & Decaf Coffee, Bean & Bean(2023.01)

국가별 하프 카페인 / 고카페인 커피제품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카페인을 절반으로 줄인 라우니아 커피	카페인 함량을 절반으로 줄인 스모키한 향의 커피	천연 카페인(에스프레소 3~4잔 함유) 고카페인 RTD	고카페인 카페 프렌차이즈 브랜드 커피 RTD

* 출처 : Mintel, Ingredient watch: low-caffeine coffee(2023.03), The Difference Between Half Caff & Decaf Coffee, Bean & Bean(2023.01), www.usacoffeeathome.com



PICK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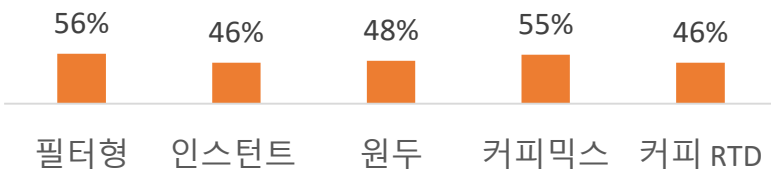
이색적인 맛과 다양한 풍미의 커피, 간편하게 즐긴다!!

- ◆ 경제불황 및 홈카페 트렌드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취향에 따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고품질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수요가 증가함
 -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제조업체는 독립커피 로스터리*, 유명 카페브랜드와 협업하여 이색적인 맛이나 특별한 제형, 예술적인 포장 디자인을 가미하여 프리미엄 요소를 갖춘 제품을 출시함
- * 독립커피 로스터리 : 자재 매장에서 생두를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다양한 향과 풍미의 커피를 신선하게 제공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 커피매장

차별화 전략으로 이색적인 맛과 포장재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추구하는 커피

<p>인도네시아</p>  <p>트로피카나 프렌치 버터 스피레 커피</p>	<p>독일</p>  <p>디저트에서 영감을 얻은 버터토피 에스프레소</p>	<p>뉴질랜드</p>  <p>유명 패션디자이너와 협업한 커피 포장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제품</p>	<p>영국</p>  <p>패션브랜드와 콜라보로 제작한 한정판 인스턴트 커피 포장 디자인</p>
--	---	---	--

다양한 풍미 첨가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커피유형



이색적인 커피제품



자용 조각을 첨가한 동결건조 커피큐브 상온제품으로 뜨거운 물에 녹여서 마시는 제품(중국)

* 출처 : Mintel, Prime coffee mixes for a new era of indulgence(2022.10), Mintel, Lessons from Nescafé: premiumising, A year of Innovation coffee 2023(2023.5)

다양한 맛의 인스턴트/RTD 커피

<p>중국</p>  <p>코코넛 콜드브루 인스턴트 커피</p>	<p>태국</p>  <p>큐브형태의 새로운 형태 및 아로마 풍미를 가한 인스턴트 커피</p>	<p>호주</p>  <p>스파클링 싱글 오리진 콜드브루 커피캔 음료</p>	<p>중국</p>  <p>마늘 향을 가미한 커피 RTD</p>
---	--	---	---

* 출처 : Mintel, Prime coffee mixes for a new era of indulgence(2022.10), Mintel, Lessons from Nescafé: premiumising instant coffee(2023.01), A year of innovation of coffee 2023, '추운 겨울엔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로 홈카페 즐기세요', 동아일보(2022.11.30), '집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커피 차 인기', 매일경제(2022.01.13), 동서식품 홈페이지



- ◆ MZ세대 소비자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감각적인 풍미 요소가 가미된 커피에 호기심을 가짐
 - MZ세대는 기존의 에스프레소나 라떼와 같은 전통적인 커피에 티라미수나 딸기 치즈케이크와 같은 감각적인 풍미를 첨가한 이색적인 커피에 재미와 호기심을 가짐
 - 독일에서는 티라미수 맛을 내는 에스프레소, 인도네시아는 팝콘 맛 커피라떼,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의 호박맛 라떼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커피 업계에서는 MZ세대들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다채로운 맛의 커피 제품을 출시 중임

이색적인 맛의 커피제품

독일



티라미수/딸기치즈케이크 맛을 내는 에스프레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산 커피콩을 사용해 만든 팝콘맛 커피라떼

사우디아라비아



레드벨벳 케이크에서 영감을 받은 케이크맛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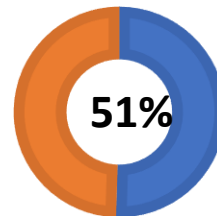
미국



시나몬 츠러스 맛 커피

- ◆ 커피제조업체들은 SNS를 소통채널로 활용하여 젊은 소비자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이자 새로운 '맛'으로서 '경험'과 '재미'를 제공
 - 이벤트, 인기 캐릭터로 포장지를 디자인하거나 '음악'과 커피를 연결시켜 오감의 '경험'을 자극하고, 업무나 공부의 집중력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통해 커피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임

새로운 커피 맛 = 재미



미국

새로운 커피 '맛'은 곧 '재미'이다

* 출처 : Mintel, 미국 18세 이상 42,900명 (다양한 풍미/혹은 싱글커피 시음자 모두 포함)

새로운 경험을 연결/제공하는 커피 제품

명절/이벤트, 개인의 신념/가치를 연결



멕시코 명절, 망자의 날을 기념하는 커피 홍보(SNS)



'속물에 대한 반항'이라는 표어로 커피의 본연의 맛과 MZ개성 강조(포장지)

업무집중 음악 및 락 콘서트 등 음악과 연결



업무/공부를 위해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에게 음악을 통해 더 집중할 수 있는 경험 제공(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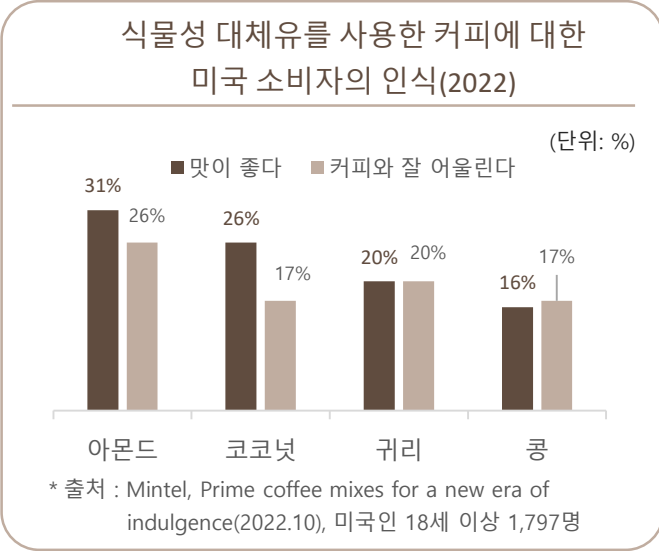
락뮤직 콘서트 페스티벌 음악과 연계한 커피 제품 (브라질)

* 출처 : Mintel, Gen Z need a triple shot of fun from coffee pods(2023.05), Mintel, Prime coffee mixes for a new era of indulgence(2022.10), Why coffee needs an extra shot of Taylor Swift(2022.11)



PICK 3 커피 한 모금에도 소중한 내 '건강'을 중시하다!!

- ◆ 식물성 대체유를 함유하여 비건 식품을 선호하거나, 새로운 풍미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킴
- 비건음료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아몬드나 코코넛우유 등을 추가하여 차별화된 커피음료 제품군을 확대 중임
- 환경과 동물복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식물성 대체유 사용한 커피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줌
- 설탕이 없는 No Sugar 커피, 건강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고기능 커피제품 출시 증가
- 로스팅 단계에서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항산화 성분을 첨가하거나 칼슘, 철분, 비타민 D, 콜라겐 혹은 인지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을 추가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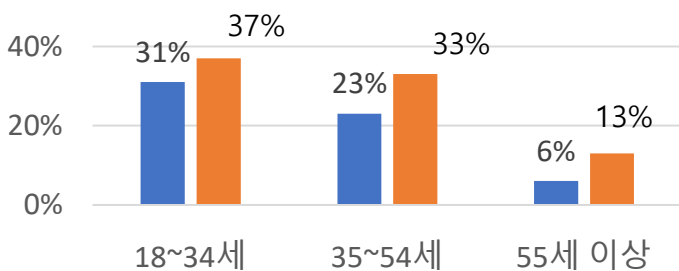
식물성 대체유 및 건강기능성 성분 강화 커피

한국	베트남	미국	영국
현미와 완두 단백질을 혼합해 고단백, 고칼슘 특성 유지한 커피	할랄인증을 받은 비건믹스커피	두뇌기능 및 집중력, 활력을 돕는 동충하초 함유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을 강화한 커피

* 출처 : 각 기업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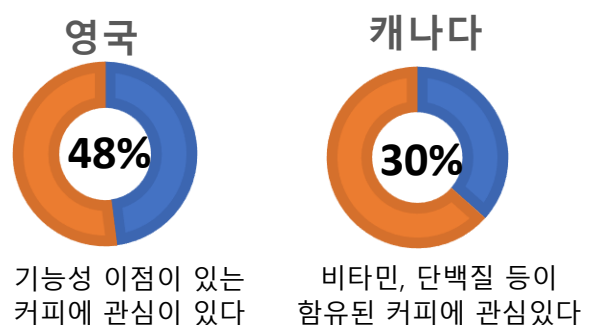
- ◆ 미국 MZ세대의 경우 기능성 커피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고,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 기능성 커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향후 커피의 향과 풍미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건강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커피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연령별 기능성 커피 선호 비율(미국)



■ 기능성 표시 커피 ■ 기능성커피 표시 없는 커피

기능성 커피 선호 비율



* 출처 : Mintel, 미국 18세 이상 기능성 커피제품 리뷰 3,800명 대상, 기능성 표시가 없는 커피 구매자 132,100명(2020~2021) Target Millennials with functional coffee innovation, 2022.3



PICK 4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업계의 지속가능한 노력으로 계속되다!

- ◆ 기후 온난화에 따른 주요 커피 생산량 및 적합 재배면적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커피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미국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보다 기온이 2°C 올라갈 경우 중남미 커피생산량은 2050년 최대 88%까지 감소하며, 국제커피기구(ICO)는 세계 커피소비량이 매년 1% 증가하는 반면 전세계 커피 생산량 2위인 베트남 및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지 적합농지는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야생 커피원두의 60%가 멸종위기에 있으며, 기후변화로 현재 커피원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라비카 원두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신종커피 원두가 미래 커피산업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지속가능한 커피를 위해 원두는 없지만 커피의 맛과 향을 구현한 대체커피, 에너지 절감을 위해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커피 머신 등이 등장함
 - 스타티스타는 전세계 대체커피 시장규모가 2022년 27억 달러(3조 5천억원)에서 2030년까지 53억달러(6조 8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스타트업 아토모(Atomo)커피는 해바라기씨, 수박씨 등을 활용하여 커피분자 구조를 재현한 콜드브루 방식의 캔커피를 출시했는데, 1,000여 가지 화합물 중 커피풍미에 영향을 미치는 40여 가지 성분을 찾아내 적용한 제품으로 전통적인 콜드브루 방식보다 물 94%, 탄소 배출 93% 감축 가능함
 - 그 외 다양한 커피 업체들이 버섯, 치커리, 라몬씨(뽕나무과 식물 씨앗), 민들레, 허브 등을 활용하여 커피 맛을 구현한 새로운 제품이 개발 및 출시 중
 - 독일 뒤스브루크-에센대 연구진은 기존 24시간 동안 추출해야 마실 수 있는 콜드브루 커피를 단 3분 내에 마실 수 있는 레이저 합성기술 바리스타 기기를 개발하여 향후 집에서 콜드브루를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음
- ◆ 또한, 친환경 패키징을 적용하여 라벨/알루미늄이 없는 포장재 커피, 탄소배출이 없는 범선으로 운송한 커피, 퇴비화가 가능한 커피 등이 출시되거나, 공정무역과 연계하여 현지 농장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아마존 원주민이 재배한 커피’ 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적용된 커피제품 출시가 확대 중임

원두가 없는 대체커피- 해바라기씨, 수박씨, 치커리, 민들레, 카카오, 버섯 등 활용



해바라기씨, 수박씨 등 커피분자를 재현한 콜드브루 캔 커피(Atomo)



치커리를 활용하여 섬유질이 풍부한 대체 커피(BIO)



고대 마야인들이 음료에 사용한 라몬씨, 캐럽, 민들레 등을 활용한 허브커피(Teccino)



카카오, 마살라차이, 차가버섯, 강황, 시나몬으로 만든 대체커피(MUD/WTR)

* 출처 : Mintel, Gen Z need a triple shot of fun from coffee pods(2023.05), Mintel, Prime coffee mixes for a new era of indulgence(2022.10)